

# 식민지 조선에서의 콜론타이 논의의 수용과 그 의미

배상미\*

## 차례

1. 일본의 콜론타이 논의 수용과 조선으로의 유입
2. 조선에서 콜론타이 이론의 소개
3. 조선에서 콜론타이 관련 논의의 전개
4. 가부장적 성도덕에 저항하는 불온한 여성들
5. 결론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식민지 조선에서 콜론타이의 연애론이 한국에 소개된 양상을 규명하고자 했다. 조선에서 콜론타이는 가부장적 성적윤리를 여성들에게 강요하는 방식으로 수용된다. 그러나 여성들은 남성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한 이 같은 흐름에 저항하였고, 콜론타이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사회생활과 연애생활을 함께 해 나갈 방안을 고민한다. 본고는 일본에서 수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는 다른 조선에서의 콜론타이 논의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당시 시대적 맥락을 검토해 나가면서 조선에서의 콜론타이 논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콜론타이의 저작은 서광제가 『붉은사랑』을, 김억이 『삼대의 사랑』을 본격적으로 소개하였다. 전자는 콜론타이를 조선에 유용한 가치를 가진다고 읽었고, 후자는 무용론으로 읽었는데, 둘 모두 가부장적 입장에서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여성을 통제하려는 목적에서 콜론타이론을 이용한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이후에도 콜론타이와 관련된 논의에서 유용론과 무용론은 경합한다. 그 중 전자의 경향을 보이는 정철성과 후자의 경향을 보이는 민병휘의 글은 주목할 만하다. 정철성은 콜론타이의 논의와 관련하여 여성에게만 정절을 강요하는 현실을 비판하고, 여성에게도 성애의 자유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피력한다. ‘간접적’인 방식은 그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청탁자나 인터뷰어의 시도를 피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었다. 민병휘는 연애가 사회주의 운동에 해를 끼친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단정적인 논조로 연애 대신 사회주의 운동에 보다 집중할 것을 당부한다. 그의 글에서 여성은 남성을 위한 연애의 대상일 뿐이다.

정철성처럼, 당시 여성들은 만연해있던 가부장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여성의 성을 통제하려는 흐름에 비판적이었다. 여성들은 간접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가부장적 성 통제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들이, 특히 여성 사회주의자들은 지속적인 혁명 사업 참여를 위해, 여성을 남성에게 예측시키는 정조개념으로부터 탈피하여 아버지와 남편, 가정 내에서 여성에게 부과된 의무 등 그녀를 구속하는 남성들의 그늘로부터 벗어나야 했다. 이는 여성 사회주의자들이 ‘사회주의자’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사회주의와 가부장제를 위협하는 성도덕이라는, 당대 가장 불온한 두 기표를 껴안고 시대상황을 돌파해 나가야 했던 상황을 반영한다.

핵심어 : 콜론타이, 사회주의, 여성, 가부장제, 성도덕, 신여성, 붉은 사랑, 삼대의 사랑

## 1. 일본의 콜론타이 논의 수용과 조선으로의 유입

이 논문은 식민지 조선에서 알렉산드라 콜론타이(Александра Михайловна Коллонтай)의 연애론이 소개된 양상의 규명을 목적으로 한

다. 조선에서 콜론타이가 처음 소개된 시점은 1920년<sup>1)</sup>부터였으나, 그 당시에는 소비에트의 권력자 중 한명이며, 세계 최초의 여성외교관이라는 직함정도만 알려졌을 뿐, 그녀의 저서나 이론이 소개되지는 않았다. 1927년, 일본에서 콜론타이의 대표적 저서인 『붉은 사랑(Vasilisa Malygina)』이 마쓰오 시로(松尾四郎)에 의해 『붉은사랑(赤い戀)』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이후부터 일본에서 유학하던 조선인들이나 일본에서 화제가 되는 논의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조선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콜론타이의 이론이 점차 수용되기 시작한다. 콜론타이의 저서나 글이 조선에서 번역되지는 않았으나, 일본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대표적인 저작 『붉은사랑』과 『삼대의 사랑』 두 편의 내용은 서평의 형식으로 알려진 바 있다. 제일 먼저 본격적으로 소개된 콜론타이의 저서는 『붉은 사랑』이었는데, 당시 카프구성원이자 조선영화예술협회의 회원으로 사회주의계열 영화운동에 참여했던 서광제<sup>2)</sup>에 의해 『赤戀』이라는 제목으로 그 내용이 상세하게 알려졌다. 『삼대의 사랑(Ljubov' trekh pokolenii)』은 김억<sup>3)</sup>에 의해 『三代의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주로 게니아의 연애방식에 초점을 맞춰 소개되었다.

김억과 서광제의 서평으로 콜론타이 저작의 내용이 소개되기는 했으나, 콜론타이와 관련된 당시 조선의 논의들은 콜론타이가 문제제기했던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이상적인 이성애관계라든가 여성의 사회진출방식보다, 사회주의적 연애란 정조를 경외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변하기에 바쁘거나, 콜론타이의 이론을 연애 같은 사적인 일보다 혁명과 같은 대의에 여성들을 복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콜론타이의 저작은 조선의 사회주의자들에게 새로운 이성애 관계를 상상할 영감을 촉진시키기는커녕,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위협으로, 혹은 연애 같

1) 송아지, 『婦人解放問題에 關하여(十二)』, 『독립신문』, 1920년 4월 13일.

2) 徐光霽, 『戀愛와 新夫人: 알렉산더 미하이로우나 코론타이의 『赤戀』을 읽고』, 『조선일보』 1928년 11월 9일-15일.

3) 金岸曙, 『『戀愛의 길』을 읽고서, -콜론타이 여사의 作』, 『삼천리』, 1932년 2월.

은 사적인 임무보다 공적인 임무를 더 강조하는 보수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수용된다. 조선에서 콜론타이의 수용양상은 당시 여성들의 성을 통제하려는 사회적인 분위기(와4), 사회주의와 ‘성적방종’을 연결하여 사회주의자를 비난하는5) 반동세력을 막으려는 남성 사회주의자들의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

조선에서 보수적인 콜론타이 수용 경향은 일본에서 콜론타이 저작의 내용을 둘러싸고 이상적인 사회주의 여성해방론과 연애관에 관한 논쟁이 일었던 것과 비교해볼 때 대조적이다. 일본 프로문학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하야시 후사오(林房雄)6)도 콜론타이의 저작을 번역했다는 점을 상기해볼 때, 일본에서는 남성 사회주의자들 역시 콜론타이의 이론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콜론타이 논의의 수용방식을 둘러싸고 일본 사회주의 운동진영 안에서 다양한 의견을 가진 논자들에게 의해 갑론을박이 이루어졌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유명한 여성인사들이 콜

4) 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푸른역사, 2004, 116-169쪽 참고.

5) 이광수는 콜론타이의 이론이 한창 조선에서 유행하던 1930년에 『革命歌의 이해』라는 소설을 『동아일보』에 연재한다. 연재 당시에도, 단행본으로 간행된 이후에도 큰 인기를 끌었던 이 소설에서 이광수는 소설 안에서 성욕을 이기지 못하고 병든 남편을 버려두고 다른 남성과 사랑을 나누는 여성 사회주의자 정희를 ‘정숙하지’ 못하다고 비난하는 동시에 이를 사회주의자에 대한 비난으로까지 연결시킨다. 『삼천리』 1931년 7월호에 게재된 『現代女流思想家들(3), 붉은戀愛의 主人公들』에서는 여성 사회주의자들이 여러 남성과 연애했던 전력을 소개하여 마치 여성 사회주의자들은 한 남성에게 ‘정조’를 지키지 않고 여러 남성들과의 연애를 즐기는 부류로 묘사하였다. 여성 사회주의자와 한 남성에게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성애관계는 가부장적 정조관념을 사회주의 비판자들과 마찬가지로 공유하고 있었던 당시 남성 사회주의자들에게 통제의 대상이자 사회주의의 대의를 더럽히는 것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6) 하야시 후사오는 1927년에 콜론타이의 소설 『위대한 사랑(ワッシリサ)』, 『삼대의 사랑(三代の戀)』, 『자매(姉妹)』를 번역하여 『연애의 길(戀愛の道)』(世界社, 1927)이라는 책을 간행하고, 이어 1930년에 콜론타이의 논설(『신부인(新しい婦人)』, 『성관계와 계급투쟁(性關係と階級鬭爭)』, 『연애와 신도덕(戀愛と新道德)』, 『날개달린 큐피드에게 길을 내주자(有翼のキューピットに道を與へよ)』, 『공산주의와 가족(共産主義と家族)』)을 번역하여 『연애와 신도덕(戀愛と新道德)』(世界社, 1930)이라는 제목의 단행본으로 출간한 바 있다.

론타이 논의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소설가 히라바야시 타이코(平林たい子)나 여성사(女性史)학자 다카무레 이즈에(高群逸枝)는 콜론타이 논의에 전적으로 긍정하지는 않았지만 콜론타이의 혁명론이나 연애론이 논의가 여성을 하나의 주체적인 인격으로 상정하여 여성을 무시하던 남성들의 고정관념에 맞서면서 봉건적 여성관을 타파하기에 적절한 텍스트라고 보았다. 콜론타이를 일본에 처음 소개하기도(『알렉산드라 콜론타이 여사(アレクサンドラ・コロンタイ女史)』, 『女性』, 1924년 10월) 했던 사회주의자 야마가와 기꾸에(山川菊)<sup>7)</sup>는 콜론타이의 여성해방론에는 찬동을 보였으나, 게니아의 연애방식과 같은 그녀의 연애론에는 반기를 들었다.<sup>8)</sup>

남성사회주의자들 역시 콜론타이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지만 입장은 제각각이었다. 당시 사회주의적 경향성을 띤 문인으로 활동한 아키타 우자쿠(秋田雨雀)는 그의 저서인 『프로레타리아 연애관(プロレタリア戀愛觀)』(世界社, 1930)에서 사회주의의 연애는 사상적 운동을 신성화하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보통의 연애와는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삼대의 사랑」에 나타난 게니아의 연애방식을 긍정했다. 그러나 다른 남성 사회주의자들에게서 콜론타이 논의에 관한 적극적인 반응은 찾아보기 어렵다. 나프의 주요 멤버였던 도쿠나가 스나오(徳永直)의 경우, 「『붉은연애』 이상(『赤い戀』以上)」(『新潮』, 1931년 1월)이라는 소설 제목에서 콜론타이 저서를 활용했으나, 일부일처제를 비판하지만 미래에의 전망은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애매한 내용의 작품이 되어버려,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콜론타이 저서를 활용한 좋지 못한 예로 기억되고 있다.<sup>9)</sup>

7) 야마가와 기꾸에가 번역한 콜론타이의 다른 글들은 다음과 같다. 「공산국가와 가족생활(公産國家と家庭生活)」(『解放』, 1921년 2월), 「무산부인의 국제적 단결(無産婦人の國際的團結)」(『婦人運動』, 1921년 9월), 「공산주의국가와 가정생활(共産主義國家と家庭生活)」(『勞働週報』, 1922년 13-17호), 「신사회와 가족제도」(『婦人運動』, 1926년 11-12월).

8) 스기야마 히데코(杉山秀子), 『コロンタイと日本』, 新樹社, 2001, 157-194쪽 참고.

9) 스기야마 히데코, 위의 책, 152-153쪽, 205-207쪽 참고.

일본에서 콜론타이는 주로 여성 사회주의자들 중심으로 여성해방론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논의로 검토되었다. 그러나 담론의 수준과는 다르게, 대중잡지에서는 콜론타이의 사상을 검토하기보다 게니아의 연애방식이 가지는 선정적인 측면이 주로 보도되었다. 대중에게 각인된 콜론타이론은 주로 ‘게니아니즘(ゲニアイズム)’이었고, 결과적으로 사회주의적 연애방식이 아닌 소부르주아적 연애방식만이 유행하게 되었다. 1920년대 말과 1930년대 초 사회주의자들을 향한 검거열풍과 연이은 전향선언으로 일본 사회주의 내부에서도 콜론타이의 논의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사그라지고 말았다. 콜론타이의 논의 가운데 연애론 외에도 모성이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들이 겪는 억압 등을 분석한 의미 있는 부분이 많지만 이 역시 연애론에 집중된 지나친 관심과 사회주의 진영 내에서 검토할 만한 여유가 없었던 이유로 주목받지 못하고 말았다.<sup>10)</sup>

일본에서 1920년대 중반 이후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콜론타이의 논의가 1920년대 말엽에 조선에 건너온 정확한 경위는 알기 어렵다. 다만 일본 책을 취급하던 서점에 콜론타이의 책이 유입되었을 가능성과, 카프 진영에서 활동하던 서광제가 이 책이 유명하다는 소문을 듣고 우연히 소개하게 되었을 가능성만을 추측해볼 수 있을 뿐이다. 김억과 서광제 모두 콜론타이가 유행하던 시기에 일본 체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일본에서 직접 콜론타이의 저서를 접하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콜론타이의 저서는 당시 상당한 인기를 얻었고 화제였었지만, 한국어로 번역하려는 시도는 없었고 일본어 판본만이 유통되었다. 일본어 비문해자들은 콜론타이에 관한 정보를 단편적으로밖에 접할 수 없었고, 이는 대부분 가부장적 남성의 입장에서 바라본 게니아의 연애방식이었기에, 콜론타이에 대한 보다 심도 있고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당시 콜론타이를 둘러싼 논의지형에 참가하여 주류적인 흐름과는 다른 방식으로 콜론타이를 해석한 여성 사회주의자가 있었으니, 그녀가 바로 정철

10) 스기야마 히데코, 위의 책, 207-209쪽 참고.

성<sup>11)</sup>이다.

정철성은 콜론타이에 관하여 논한 몇 안 되는 여성 사회주의자 중 한 명이다. 그녀는 콜론타이의 『붉은사랑』에 관해 인터뷰 형식으로 코멘트를 남긴 바 있는데<sup>12)</sup>, 그녀는 여타의 사회주의자들과는 달리 결혼과 이혼의 자유가 없는 현재의 사회에서 연애와 성욕은 구별해야한다는 콜론타이의 주장에 동의하고, 정조와 혼전순결을 지켜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 콜론타이의 소설에서 정철성이 무엇보다 주목하는 부분은 ‘자유’이다. 사회생활 참여의 면에서나 연애와 결혼의 면에서나 선택의 자유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조선 여성들에게 ‘자유’는 여성의 주체화를 위해 무엇보다 절실하였다. 여성의 자유 확대라는 측면에서 콜론타이를 수용하는 그녀의 자세는 여성에게 가부장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콜론타이의 논의를 이용하려 한 남성 사회주의자들의 태도와 상반되며, 직접적으로 논쟁을 벌이지는 않았으나 남성 사회주의자들의 해석과 경합하는 양상을 보이며 당시 콜론타이 해석의 또 다른 지평을 마련한다.

식민지 조선에서의 콜론타이 수용에 관한 연구는 주로 한국문학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연구의 경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콜론타이의 연애론을 그녀의 저서를 중심으로 정리한 후, 그것이 수용된 시기에 창작된 프로소설에 그녀의 연애관이 재현된 양상 또는 여성 작가들의

11) 정철성(1908~?)은 대구에서 상경하여 한남권번의 기생으로 일하다가, 1922년 일본 도쿄의 영어강습소 수학경험을 기회로 사회주의를 받아들여 1923년 귀국한 후부터 사회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한다. 1924년 5월에는 여성동우회 결성에 집행위원 자격으로 참여하며, 1925년에는 다시 도쿄로 건너가 도쿄 여자기예학교에 입학하고 여성사상단체 삼월회의 일원으로 활동한다. 1927년에는 근우회 결성에 중앙집행위원 자격으로 참여하고, 1929년에는 신간회 중앙위원으로 활동한다. 1931년에는 신간회 중앙집행위원 자격으로 신간회 해소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해방 이후에도 조선공산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남한에서 조선부녀총동맹 중앙위원으로 활동하고, 월북한 이후에도 고위직을 연임하였다.(강만길·성대경 엮음,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 창작과비평사, 1996, 442쪽 참고)

12) 정철성, 『『赤戀』 批判, 柯爾onta이의 性道德에 對하여』, 『삼천리』, 1929년 9월.

작품에 나타난 콜론타이론의 영향을 살핀 연구와<sup>13)</sup>, 콜론타이의 논의를 소개한 기사들을 중심으로, 근대 연애론 수입의 맥락에서 콜론타이가 논의된 양상을 살핀 연구<sup>14)</sup>가 있다. 두 경향 모두 콜론타이의 논의 자체와 그 당시 기사 등에서 종종 등장하던 ‘붉은연애’, ‘콜론타이즘’ 혹은 ‘게니 아니즘’이 문학이나 사회에 새로운 연애방식을 제시하였다는 현상에 주로 주목하고, 콜론타이이가 조선에 유입된 경위와 조선에서 콜론타이에 관한 논의의 특징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남성들의 가부장적 통제 강화와 일체의 검열 속에서도, 콜론타이의 저서는 인기리에 여성 일본어 문해자들에 의해 읽혔고<sup>15)</sup>, 콜론타이가 제시한 사회활동과 아내/어머니 의무 사이의 긴장과, 성적 자유의 주장에 공감했다. 정철성은 여성의 성적/사회적 ‘자유’의 확대라는 맥락에서 콜론타이의 논의를 수용한 대표적인 논자이다. 여성의 시선에서 콜론타이를 독해한 정철성의 콜론타이 논의는 식민지 조선에서 콜론타이가 불온하게 여겨졌던 이유를 읽어내는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조선에서 콜론타이가 수용된 맥락과 수용 양상을 분석하는 가운데, 조선에서의 수용 특성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가부장적

13) 서정자, 『콜론타이즘의 이입과 신여성기획-“지식인 여성노동자” 등장과 “주의자 연애”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2호, 2004, 7-35쪽; 이상경, 『1930년대의 신여성과 여성작가의 계보 연구』, 『여성문학학회』 21호, 2004, 237-269쪽; 이태숙, 『붉은 연애와 새로운 여성』, 『현대소설연구』 29호, 2006, 159-181쪽.

14) 김수진, 『신여성, 근대의 과잉』, 소명출판, 2009, 323-326쪽; 서지영, 『계약과 실험, 충돌과 모순: 1920-30년대 연애의 장(場)』, 『여성문학연구』 19호, 2008, 139-175쪽; 이사유, 『1920년대 후기 프로소설의 연애문제』, 인하대학교 석사논문, 2009, 30-33쪽; 이화영·유진월, 『서구 연애론의 유입과 수용양상』, 『국제어문』 32호, 2004, 209-234쪽; 홍창수, 『서구 페미니즘 사상의 근대적 수용연구』, 『상허학보』 13호, 2004, 317-362쪽.

15) 1931년 초에 『동아일보』가 남/녀 학생, 인쇄직공을 대상으로 조사한 독서경향에 따르면, 여학생들과 인쇄직공 그룹에서 일본에서 간행된 콜론타이의 『붉은사랑』을 외국 소설분야에서 제일 많이 읽은 책으로 꼽았다. (『讀書傾向- 最高는小説 興味있는讀後の所感 動機最高는친구勸誘: 第一次 女學生界』, 『동아일보』, 1931년 1월 26일; 『讀書傾向- 最高는小説 第二位는歷史傳記類 動機는慰安이最多數: 第三次 印刷職工』, 『동아일보』 1931년 3월 2일 참고).



통제의 흐름과 이에 맞서 여성의 자유를 확대해나가려는 경향은, 호의적이지 않은 시대상황에서도 사회주의적 여성주체를 끊임없이 모색해나가는 여성 사회주의자들의 노력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 2. 조선에서 콜론타이 이론의 소개

콜론타이의 대표적 저서인 『붉은사랑』과 『삼대의 연애』는 각각 서광제와 김억에 의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었다. 특히 문명(文名)이 높지 않았던 신인 평론가 서광제가 콜론타이의 『붉은사랑』의 서평을 『조선일보』에 6회나 걸쳐 연재했었다는 사실은 당시 콜론타이의 새로운 연애관에 대한 조선 내에서의 관심을 짐작하게 한다. 서광제의 『붉은사랑』 서평은 이 책에 대한 콜론타이의 코멘트와 일본으로 추정되는 ‘외국사회’에서의 이 책에 대한 평문, 그리고 내용 요약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요약 중간 중간에 등장하는 책의 내용에 관한 서광제의 견해는 그가 『붉은사랑』의 올바른 독법을 소개하려는 의도도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남성 사회주의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아내가 될 여성들에게 기대하는 바를 이 소설의 내용과 결부시켜 서술한 『붉은사랑』에 관한 평문의 인용은, 『붉은사랑』을 바라보는 서광제의 시각을 반영한다.

“우리들의妻가 赤戀의主人公 왓시릿사와가티賢明하고情熱이잇스면我等은 젊은 戰鬪家は얼마나 幸福스럽게힘잇는대까지세상과 싸울것인가多少의 經綸과情熱을가진男子는 이冊을읽은後에 이러한生角을하엿을 것이다”<sup>16)</sup>

‘처’가 있는 이 평문의 ‘우리들’은 남성 사회주의자들만을 지칭할 뿐, 여성들은 제외시킨다. 철저하게 남성의 입장에서 서 있는 평문의 필자는 『붉

16) 徐光霽, 『戀愛와 新夫人: 알렉산더 미하이로우나 콜론타이의 『赤戀』을 읽고(二)』, 『조선일보』, 1928년 11월 10일.

은사랑』을 가정 밖에 나온 여성들이 연애/결혼 상대인 남성들을 위해 갖추어야 할 적절한 태도를 논하는 텍스트로 그 의의를 한정한다. 평문의 바로 앞 내용에는 콜론타이가 『붉은사랑』을 창작한 취지가 인용되어 있는데, 그 인용문에서 콜론타이는 독자들에게 이 책에서 왓시릿사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사회주의자로서의 책임감과 사랑하는 이에 대한 책임감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던 갈등에 주목해달라는 당부를 남겼었다.

그러나 서광제는 콜론타이의 저술의도보다 평문의 독해방식에 더 공감했던 것으로 보인다. 서광제는 『붉은사랑』의 내용을 소개하기 이전에, 독자들에게 이 소설을 소개하는 의도를 밝힌다. 우선 그는 “이小説이코뮤니니스트의小説이라고 同感한다는것은 아니다”<sup>17)</sup>라면서 이 소설을 사회주의적 성격을 가진 소설로 읽기를 거부한다. 대신에 그는 남성 사회주의자의 입장에서 여성들을 지도할 때 적절한 지침을 제공하는 소설로 읽어낸다.<sup>18)</sup> 평문처럼 남성의 입장에서만 『붉은사랑』을 이해하는 그에게, 소설 안에 그려진, 사적 영역의 존재로만 취급받았던 여성들이 사회활동에 진출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눈에 들어올 리 없었다. 그는 연재 분량의 마지막 부분에서 『붉은사랑』의 여성이 현대 여성과 인류 해방에 던져주는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生活에對한獨立의要求를가진 女主人公 그들의性格을主唱하는 女主人公 國家·家庭·社會에있는모든婦人の奴隸化에抗議를하고 女性의代表者로서 婦人の權利를爲하여 싸호는女主人公 이러한形을表示하고있는婦人の全部는 실로獨身婦人이다”(…) “兩性相互의 獨立과對等이없시는人類的解放은存在가할수가없다”<sup>19)</sup>

17) 徐光霽, 『戀愛와 新夫人: 알렉산더 미하이로우나 코론타이의 『赤戀』을 읽고(四)』, 『조선일보』, 1928년 11월 13일.

18) 『붉은사랑』를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今後女性을獨立시키며 指導할것이무엇인가를 『赤戀』은 그것을 敎示하여줄 것이다”(徐光霽, 위의 글)라고 이 소설이 가지는 의의를 설명한 부분은, 그가 이 소설이 여성들에게 던져주는 문제의식에 동감한 것이 아니라 여성을 지도할 지침서로서 받아들였음을 드러낸다.

왓시릿사에게서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가치로 무엇보다 ‘양성상호의 독립’을 꼽는 서광제는 현재 조선에서의 부부관계가 여성이 남성에게 의존하는 형식이라고 보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남성에 대한 여성의 의존이 현재 나타나는 여성예속의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그가 왓시릿사를 남성 사회주의자들에게 이상적인 부인이라고 언급한 이유는 바로 남성에게 독립적인 부분에 착안한 것이다. 이때의 독립적이라는 의미는 정서적으로도 기대지 않는다는 뜻도 있겠지만, “生活에對한獨立”이라는 구절에서도 드러나듯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라는 어감이 강하다. 그의 마지막 연재분은 전부 게재되지 못하고 후락되기는 했으나, 게재된 연재분의 마지막에는 그가 가정 안의 여성들에게 노동자로서 사회에 진출하라고 촉구하는 당부의 말이 실려 있다. 비밀조직에서의 활동, 상시적인 구속의 위협에 시달리는 사회주의자들에게 가족을 지킨다는 의무는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혹여 검거라도 되는 날에는 그를 돌보아줄 가족이 필요했다. 남편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경제적 자립을 이뤄내는 왓시릿사는 신변이 불안정한 남성 사회주의자의 아내로 적절해보였을 것이다. 그는 『붉은사랑』을 남성 사회주의자에게 적절한 부인상을 논하는 텍스트로 독해하여, 소설 안에 드러난 여성들의 자립을 여성 주체의 건설과정으로 보는 대신 이상적인 부인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 해석해버린다.

경제적 자립은 사랑에 근거한 연애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도 중요했다. 1930년 11월 『삼천리』에 게재된 설문 「男便在獄·亡命中 妻의 守節問題」에서 허정숙, 이덕요와 김일엽은 수감자 남편의 아내에게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고 남편을 위해 정조를 지킬 의도가 있더라도, 여성 혼자서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아내 혼자 남편이 출옥하기만을 기다리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서광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연애감정에 근거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여성의 경제적

19) 徐光霽, 『戀愛와 新夫人: 알렉산더 미하이로우나 코론타이의 『赤戀』을 읽고(六)』, 『조선일보』, 1928년 11월 15일.

자립은 중요하다. 왓시릿사가 그녀의 남편에 대한 애정이 식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남편을 떠날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녀가 자신의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었고, 혁명 러시아의 상황으로 독신여성의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환경이 갖추어졌기 때문이다.

현대 여성을 교화하기 위한 바람직한 텍스트로 『붉은사랑』을 소개한 서광제와는 달리 김억은 비판적 시각에서 『삼대의 사랑』을 소개한다. 그는 콜론타이의 소설이 조선사회에 던져주는 유의미한 교훈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자신이 “곰팡내가 코를 찔으”기 때문에 ‘침단’을 달리는 콜론타이의 연애론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조곰도 이것을 내自身の 부스럽힘이라고 생각지 안이하는바”<sup>20</sup>라고 하며 콜론타이의 연애론에 비판적인 자신의 입장이 올바르다는 확신을 내비친다. 콜론타이 이론을 소개하는 입장에서 서 있는 저자가 글의 서두에서부터 콜론타이 주장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비판하는 이유는, 그가 조선 사회에서 콜론타이의 수용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기 위해 이 글을 작성했기 때문이다.

근대 이전에, 그리고 근대 이후에도 조선의 남성들은 첩이나 ‘제2부인’, 혹은 성매매의 형식으로 본처 이외의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일이 흔했었다. 게니아가 보여주는 여러 사람들과의 일시적인 성관계는, ‘연애론’이라는 이름하에 이론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실상 남성들에게서는 과거부터 일반적으로 목격되던 현상이었다. 주체가 남성이었다면 충격적이지 않았을 연애방식이, 주체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인해 김억과 같은 지식인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만약 게니아처럼 여성들이 가정 안에서 가부장의 통제 하에 ‘정조’를 지키지 않게 된다면, 남성들은 더 이상 여성의 재생산을 통제할 수 없게 되고, 여성지배를 통해 주체/주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기도 어려워진다.<sup>21</sup> 여성 통제는 가부장권 유지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남녀 불문하고 여러 사람과 성관계하

20) 金岸曙, 위의 글, 101쪽.

21) 캐럴 페이트만, 이충훈·유영근 역, 『남과 여, 은폐된 성적계약』, 이후, 2001, 169-262쪽 참고.

는 연애의 존재가능성을 타진하는 콜론타이의 저작은 그 어떤 논의보다 더 위험해보였을 것이다.

김억은 책의 내용을 요약한 후, 글의 말미에 이 책에 대한 그의 의견을 짧게 덧붙이는데, 게니아의 연애관을 “過渡期の 잘못된 戀愛觀이라고 하면 몰으거니와 이것을 결코 새롭은 觀念으로의 戀愛道德이라고 할수는 업는것외이다”<sup>22)</sup>라고 매우 단호하게 선언한다. 김억은 자신의 판단에 근거를 덧붙이지 않은 김억의 글에서, 독자들이 모두 자신처럼 게니아의 연애방식에 동의하지 못하리라는 자신감이 느껴진다. 김억은 연애문제가 공론장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므로, 콜론타이의 주장을 비판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언급한다. 연애 담론의 주도권이 가부장제를 위협하는 콜론타이의 연애론에 넘어가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당시에는 직접 일본어로 콜론타이의 저서를 읽은 후 이에 동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본어 독해 능력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풍문처럼 떠도는 콜론타이의 소설 내용과 게니아의 연애방식을 듣고 어설피게 선진적인 연애방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김억은 콜론타이의 ‘실상’을 드러낸다면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교정할 수 있으리라고 본 것이다.

콜론타이의 이론이 현재 조선의 여성해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 서광제와는 달리, 김억의 경우 콜론타이의 논의가 사회에 해로우며, 논의되어야 할 가치가 없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결론이 모두 남성의 가부장권을 여성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의도를 함의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콜론타이 소설에 관해 상반된 평가를 내렸을지언정 텍스트를 분석하는 두 사람의 관점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둘 모두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을 훈계하는 태도를 유지한다는 공통점은 남성 지식인들이 조선에서 콜론타이의 텍스트를 독해해나가는 방향성을 잘 보여준다. 이후 콜론타이를 논한 남성 필자들은 대체로 두 사람의 비평방식과 유사한 방식을 유지한다.

22) 김억, 위의 글, 103쪽.

### 3. 조선에서 콜론타이 관련 논의의 전개

조선에서 근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이래, 기존 사회의 모순들은 ‘봉건적’이라는 이름하에 개혁의 대상으로 논의되었다. 그 중 남성에 비해 낮은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 역시 우선적으로 개혁되어야 할 부분 중의 하나였다. 사적 영역에서 남녀의 관계개편은 하나의 중요한 의제로서 논의되었고, 대중교육의 확산으로 여성의 지적 수준이 향상되면서 여성 문인, 여성 필자가 미디어에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 중 여성 필자들의 논설은 연애에 관한 것이 많았고, 많은 반발을 샀지만, 그녀들의 논의는 1920년대 연애담론의 형성과정에서 무시하기 어려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sup>23)</sup> 그러나 1920년대 후반의 몇 가지 시대적 변화는 연애담론 지형에도 변화를 야기하였다.

192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를 휩쓸었던 공황은 개인보다 사회를 더 중시하고, 근대에 들어와서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주체로 재발견된 여성에 대해서도 전통적인 역할을 다시 강요하는 보수적인 흐름을 동반했다.<sup>24)</sup> 조직에 의한 혁명운동을 중시하는 사회주의 진영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개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주창된 1920년대 초반의 연애론은 운동진영의 통일성을 어지럽히는 부르주아적 논의로 취급될 소지가 다분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성의 자유를 논한 콜론타이즘이 유입되자, 남성 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와 ‘성적 방종’의 이미지가 결합될 것을 우려하여 여성의 성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콜론타이를 해석하기에 이른다. 남성 사회주의자들을 통해 나타나는 콜론타이와 관련된 입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보면, 첫째, 사회주의자의 입장에서 콜론타이의 저서를 연

23) 권보드래, 『연애의 시대』, 현실문화연구, 2003; 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20세기 전반기 신여성과 근대성』, 푸른역사, 2004 참고.

24) 미국에서도 1920년에 여성참정권 확보 이후 점차 고조되는 여성인권에 대한 관심이, 대공황기 이후 다시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보수적인 흐름으로 전환된다. (이창신, 『경제 대공황기 젠더체계와 미국여성: 여성 고용정책과 정치 네트워크 형성을 중심으로』, 『미국사연구』 17집, 2003, 124-129쪽 참고)

애와 사회주의 운동의 적절한 관계를 논한 텍스트로 읽는 경우와, 둘째, 역시 사회주의자의 입장에서 콜론타이의 논의를 연애론으로 협소하게 축소시키고 사회주의 운동에 전혀 유익한 시사점을 던져주지 못하는 텍스트로 읽는 경우가 있다.

콜론타이와 관련된 평문 중 첫 번째 방식의 것이 제일 많이 포착<sup>25)</sup>되는데, 주로 서광제와 유사한 입장에서 서술되었다. 예를 들면, 저명한 사회주의자 김운은 콜론타이의 『붉은사랑』이 “享樂的性行爲”<sup>26)</sup>를 엄격하게 단죄하고, 국가와 계급을 위해 헌신하는 여성상을 그려내었다는 이유로 고평한다. 김운 역시 여성들을 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콜론타이 논의를 해석한다. 그러나 여성필자인 정칠성과 김옥엽은 남성필자들과 조금 다른 시각을 보인다. 특히 정칠성의 평론이 주목할 만하다. 기자와 대담하는 형식으로 콜론타이의 『붉은사랑』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드러낸 정칠성은, 여성의 사회진출과 연애에 근거한 결혼을 옹호하는 입장에 서서 콜론타이의 저서가 이에 합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한다. 또 『붉은사랑』에서도 등장했었던 여성의 사회진출에 남편이 반대하는 상황을 극단적으로 가정하고 이 경우 여성의 올바른 대처는 무엇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정칠성은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의무는 사회활동이므로 만약 남편이 이를 반대한다면 이혼도 불사하겠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힌다. 기자의 집요한 질문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자신의 신조를 굽히지 않던 정칠성이지만, 왓시릿사가 기존의 약혼자를 버리고 새로운 남성과 결혼을 선택한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말을한대

25) 이 경향에 해당하는 글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정칠성, 「『赤戀』批判, 卍론타이의 性道德에 對하여」, 『삼천리』, 1929년 9월; 김하성, 「世界女流運動者프로필(基二)」, 『신여성』, 1931년 12월, 49-50쪽; 김운, 「코론타이 戀愛觀 批評」, 『별건곤』 제29호, 1930년 6월, 92-94쪽; 김옥엽, 「『짜벳트·러시아』의 新戀愛·新結婚」, 『신여성』, 1932년 3월, 20-23쪽; 하문호, 「코론타이 女史의 思想과 文學」, 『新家庭』, 1934년 12월, 112-119쪽; 김옥엽, 「清算 尙戀愛論-過去戀愛論에 對한 反駁-」, 『신여성』, 1931년 11월, 6-10쪽.

26) 김운, 위의 글, 93쪽.

야 아직우리조선사회가 용납하여주지안을터이니까요”<sup>27)</sup>라며 답변을 회피한다. 이어 남편의 불륜을 용서해준 왓시릿사의 행동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역시 제말은 조선사회가 허락지안을터이니 차라리 입을담을겿습니다”<sup>28)</sup>라며 함구한다.

정철성이 답변을 회피한 질문은 모두 여성의 정조와 성애의 자유와 관련되어 있었다. 여성의 성도덕과 관련된 기존의 담론에 동의하지 못하는 그녀이지만, 조선사회의 가부장적인 분위기는 여성의 성애문제에 대한 그녀의 공개적인 발언권을 막았던 것이다. 정철성은 1930년 『삼천리』의 한 설문에서도 역시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頭腦로는 守節 못하는것이 조치못하다고 認定하면서도 守節 못하는 안해된사람을볼새에 나는人間的同情을 도로허가지게되는것”<sup>29)</sup>이라면서 남편의 재옥 중에는 제 2 남편과 함께하다가 출옥한 후 다시 남편에게 돌아가는 사례를 언급하며 “이속에 내가말하고저하는暗示가充分히 잇는줄알기에 그以上은 더길게말하지안습니다”<sup>30)</sup>라고 덧붙인다. 여전히 여성의 성욕문제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여성 역시 남성처럼 자연스러운 성욕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정조를 지키라는 언명은 여성의 성욕을 간과한다는 의견을 내비친다. 여기서 계급투쟁이라는 대의와 사회의 성도덕을 지키는 명분으로 여성의 성적 자유를 통제하는 사회주의자 및 당대 사회의 분위기에 불만이 많은 정철성의 입장이 드러난다.

정철성은 1931년 2월 『조선지광』에서도 현재 조선사회의 이성애 관계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다. 그녀는 여전히 남아있는 남존여비의 봉건사상과 경제적으로 남성에게 예속되어있는 여성의 현재 상황을 언급하며 연애관계도 불평등하다고 주장한다. 단적인 예로 “貞操觀부터 男女가

27) 정철성, 앞의 글, 7쪽

28) 정철성, 위의 글, 7-8쪽.

29) 정철성, 「不在中은意識的行動하라」, 「男便在獄·亡命中妻의守節問題」, 『삼천리』 제2권 제10호, 1930년 11월, 39쪽.

30) 정철성, 위의 글, 40쪽.



다르게되어서男子는제맘대로 性的放縱을하면서도 女子에게는 偏務的으로 貞操를強制”<sup>31)</sup>하는 현실을 지적한다. 두 글에서 드러난 정철성의 이성애에 관한 견해에서, 앞서 언급한 『붉은사랑』 비평에서는 미처 말하지 못했던 조선의 이성애 관계를 바라보는 그녀의 관점을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정철성은 여성에게만 강요되는 수절과 이 때문에 불평등 할 수밖에 없는 이성애 관계에 비판적이었다. 『붉은사랑』에 관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정철성에게 던진 질문들은, 모두 『붉은사랑』이 조선사회에서 쉽게 수용되기 어렵고, 왓시릿사와 그녀 남편의 사례가 조선사회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킬만하다는 전제가 내재되어 있다. 인터뷰 과정에서 논란이 될 만한 그녀의 답변에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기자의 태도에서 그녀는 인터뷰의 성격을 파악했으며, 그녀의 입장을 그대로 대답했다가는 그것이 왜곡되어 여성 사회주의 일반이 방종한 성애관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직접적으로 답변을 회피했던 것이다. 아마 그녀는 왓시릿사와 그의 남편을 통해 여성에게만 강요되는 정조관념과 남성은 불륜을 저지르고서도 당당하지만 여성은 변명을 늘어놓아야 하는 불평등한 현실을 비판하고 싶었을 것이다.

정철성이 여성에게만 강요되는 정조를 비판하면서도 그 비판의 날을 강력하게 세우기를 꺼렸던 이유는, 비판의 초점이 흐려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1927년 1월 신간회 결성으로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협력적 관계가 심화되는 듯 했으나, 1928년 12월 코민테른의 12월 테제 발표 이후, 사회주의 진영은 다시 민족주의 진영을 비판하면서 철저한 계급투쟁에 입각한 운동의 방침을 세우고자 했다. 민족주의 진영은 그런 사회주의 진영을 여러 각도에서 비판하였는데, 그 중에는 콜론타이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주의적 성해방론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사회주의자들이 성적으로 방종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이광수는 1930년 1월에 발표한 『혁명가의 아내』라는 소설에서 여성 사회주의자를 성욕이

31) 정철성, 『戀愛의苦悶相과그對策』, 『조선지광』, 1931년 1월, 40쪽.

극단적으로 강하고 정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인물로 묘사하여 사회주의 운동가들의 진정성을 조롱한 바 있다.

정철성의 논의들에는 민족주의자들이 사회주의와 사회주의자들을 성적으로 조롱하는 경향에 비판적이었고, 그러한 오해를 해명하려는 노력들이 드러난다. 정철성은 1930년 6월 『삼천리』에서 진행된 「兄妹間戀愛와 血族結婚 否可論」이라는 설문에서, 「삼대의 사랑」을 읽은 사람들에게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모녀가 같은 남성과 성관계를 맺어도 문제없다고 오해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여기서 그녀는 콜론타이 저서에서 나타난 케니아의 성생활은 사회주의자들의 일반적인 성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기에 나타난 다양한 형태의 성관계 중 하나라고 강조한다. 그녀가 혈족간의 성관계를 비판하는 이유는 정조나 가부장적 가족윤리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것이 조선시대에 규방 밖으로 나오기 어려웠던 여성들을 강간하는 형태로 나타났다는 비극적인 역사적 맥락<sup>32)</sup> 때문이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성의 영역이 가부장적 지배가 비난이 작동하는 근본적인 지대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당시는 자본주의적인 가부장제는 사회주의에 성적인 의미를 덧칠하기 위해 여성으로 성별화하여 비난하던 상황이었다. 가부장제에 맞서는 저항이 여성의 권리와 사회주의 지향 모두를 위해 요청되던 상황에서, 정철성은 어떤 사회주의보다도 이에 정면으로 맞선다.

두 번째 방식으로 콜론타이의 텍스트를 읽어낸 논문들은 콜론타이의 연애론이 철저하게 노동계급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못한다거나<sup>33)</sup>, 혹은 사회주의자에게 연애 그 자체는 무용하다<sup>34)</sup>는 주장을 펼친다. 이 논

32) 정철성, 「兄妹間戀愛와 血族結婚 否可論」, 『삼천리』, 1930년 6월, 61-62쪽.

33) 安德根, 「戀愛의階級性과 코론타이주의의小市民性」, 『大衆』, 1933년 5월, 54-55쪽; 安含光, 「戀愛混街에서 나는이러케말한다」, 『批判』, 1931년 9월, 89-94쪽; 安火山, 「無産階級の 性道德論」, 『삼천리』, 1933년 3월, 68-72쪽; 尹亨植, 「푸로레타리아戀愛論」 2, 『삼천리』, 1932년 4월, 56-58쪽. 尹亨植, 「푸로레타리아戀愛論」 2, 『삼천리』, 1932년 5월, 34-35쪽.

34) 閔丙徽, 「愛慾問題로 同志에게」, 『삼천리』, 1931년 10월.

설들의 대부분은 남성의 입장에서 독자들을 훈계하는 태도를 취한다. 대표적으로는 민병휘의 논설문이 있다. 카프 소속으로 프롤레타리아 연극 운동계에서 활동하던 민병휘는 동지에게 보내는 서간문의 형식으로 콜론타이의 대표저서 『붉은 사랑』과 『삼대의 사랑』을 언급하면서, 사회주의자들이 이 저서들에 관심을 많이 가졌지만 실상 이 작품은 운동가들을 현실에서 격리시킬 뿐 혁명의식은 전혀 고양시키지 못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심지어 “戀愛라는 情緒的行動은 우리들의X力을抹殺시키고 同志들의 사히와 陣營을문란케만드는것”<sup>35)</sup>이라고 강조한다.

그가 극단적으로 연애를 혁명 사업의 해악이라고 규정하게 된 배경에는 같이 운동하던 동지들 사이에서 다른 동지의 애인과 사랑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자 이 일을 계기로 분파가 생겨버리거나, 사랑하는 여성에게 자신의 영웅적 행동을 뽐내기 위하여 조직의 내부기밀을 누설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가 보았을 때 남성 사회주의자들이 여성과 접촉하는 것은 투쟁을 망치는 길이다. 그에게 투쟁은 사랑, 돌봄 등 사적 영역의 일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로, 자본가나 제국주의자 등 눈앞에 보이는 적과 맞서 싸우는 것에 한정된다. 남성 사회주의자에게 여성과의 관계는 성적인 것으로 한정되며 ‘전술’의 일환으로서 남녀가 동거하거나 부부가 되어야 할 때만 필요하다.

연애는 혁명사업의 일환이 아니라고 간주하고, 여성과의 관계를 ‘전술’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민병휘의 글은, 그가 여성을 동지적 관계에서 사고하지 못하고 단지 투쟁에의 방해물 혹은 투쟁을 위한 수단으로 대상화하는 시각을 드러낸다. “小뿌르조아式 戀愛를하려면 계집의 치마에 싸히여 죽어버려라”<sup>36)</sup>와 같은 구절은 여성을 연애 대상으로만 대상화하는 그의 시각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또한, 콜론타이가 『붉은 사랑』에서 사회주의 혁명 이후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연애론과의 관계에서 풀어내려고 한 시도에는 전혀 주목하지 않은 채 단지 그녀의 텍스트를 연애론

35) 閔丙徽, 위의 글, 88쪽.

36) 閔丙徽, 위의 글, 89쪽.

으로만 읽어낸다. 콜론타이 논의에 대한 민병휘의 일천한 이해정도는 그가 콜론타이의 텍스트를 모두 읽었는지 의심스러운 정도이다.

정철성과 민병휘는 모두 콜론타이의 텍스트를 논의대상으로 삼지만, 이를 해석하는 둘의 시각은 극명하게 상반된다. 여성의 사회활동의 자유와 정조로부터의 해방을 논하는 정철성과, 여성을 남성의 성공적인 혁명운동을 위해 수단적으로 배치하는 민병휘는 당시 사회주의 진영 내부에서 여성의 지위를 둘러싼 갈등의 일면을 보여준다. 이는 사회주의에 대한 반동적 움직임에 맞선 대응방식과도 관련된다. 앞서 언급했던 「혁명가의 아내」에서 드러나듯 사회주의는 여성이라는 젠더로 성별화되어, 성적코드를 활용하여 그것이 가지는 불온성이 강조되고 있었다. 이러한 반동적 상황에서 이광수의 젠더관점을 비판하고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주체로서의 위치를 강조하며 사회주의 이념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이냐, 혹은 이광수와 유사한 젠더관점을 공유한 채로 사회주의 이념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오히려 여성들을 더욱 통제하고 남성 사회주의자들 또한 여성과의 접촉을 막을 것이냐, 정철성과 민병휘는 이 두 가지 대응방식을 대표한다. 민병휘로 대표되는 두 번째 방식은 반동적 흐름이 기대고 있는 성별화된 코드를 근본적으로 비판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내포하고, 사회주의 운동 안에 여성들을 포섭하지 못한다는 분명한 한계를 지닌다. 반면 정철성의 대응방식은 이광수와 같이 성별화된 코드를 활용하여 사회주의를 비판하는 이들에 정면으로 맞서고, 사회주의 이념의 정당성과 여성의 주체화를 동시에 선취한다. 즉, 여성을 성애화하여 사회주의를 조롱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본주의적 가부장제에 대해 여성 권리의 이름으로 대항하여, 여성과 사회주의자라는 정체성을 결합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 4. 가부장적 성도덕에 저항하는 불온한 여성들

콜론타이를 언급한 여러 논자들은 그녀의 저서가 “연애보다는 일이 중

요하다”<sup>37)</sup>, “戀愛는 私事다”<sup>38)</sup>라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해석한다. 결국 연애보다 혁명 같은 대의에 여성들이 더욱 집중하는 것이 여성해방을 위한 길이라는, 그리고 혁명을 달성하는 길이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공적인 일에 집중하라는 주장은 여성들이 성적인 측면에서 남성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를 억제하려는 의도 역시 강했다. 조선사회에서 남성의 성욕과 여성의 성욕은 각각 달리 취급되었으며, 남성의 성욕은 자연스러운 것일지언정 여성의 성욕은 그 주인인 남성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었다. 재옥(在獄) 남성의 성욕에 관한 것과 재옥 남성의 부인의 정조에 관한 기사는 당시에 성욕 역시 성별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1930년 11월과 1931년 3월에 간행된 『삼천리』에 각각 「男便 在獄·亡命中妻의守節問題」와 「在獄中性慾問題」라는 기사가 게재된다. 전자는 남녀 사회주의자들에게 남편이 투옥되었을 때 부인의 재혼여부와 수절문제를 논한 기사이고, 후자는 항일운동 와중에 재옥 경험이 있는 남성 필자에게 옥중에서 성욕처리방식을 묻는 기사였다. 두 기사 모두 남녀의 성욕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제목에서부터 남편이 부재한 상황에서 여성은 수절해야 마땅하고, 남성은 일정기간 성행위를 하지 않고는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이 ‘기본항’으로 전제되어있다. 또한 여성들 역시 일제에 저항하다가 수감된 사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sup>39)</sup>, 「在獄中性慾問題」가 조사대상자를 남성만으로 한정하여, 남성만을 성욕의 처리 문제를 자연스럽게 논할 수 있는 주체로 상정한다. 결국 두 기사는 여성은 결혼한 남성에 대한 정조를 지키며 성욕을 억눌러야하고, 남성은 어떤 상

37) 河文湖, 『코론타이女史의思想과文學』, 『신가정』, 1934년 12월, 356쪽.

38) 金玉葉, 『清算할戀愛論-過去戀愛論에對한反駁-』, 『신여성』, 1931년 11월, 10쪽.

39) 기사가 게재된 시기 즈음의 사건만 놓고 보아도 여성들이 일제 저항 관련으로 수감된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1929년 12월부터 뚜렷한 명분 없이 조선 내 사회단체 간부들을 대거 검거하여 취조하는 사건이 벌어졌었는데, 이 때 정철성, 허정숙 등 당대 유망한 여성 사회운동가들도 포함되었다.(『宗教, 社會各方面重要人物續續檢學』, 『동아일보』, 1929년 12월 14일; 『社會團體幹部 總檢學에着手』, 『동아일보』, 1930년 1월 17일; 『各署의檢學總計 現在九十餘人』, 『동아일보』, 1930년 3월 8일.)

황에서든 성욕을 처리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사회의 상식을 드러낸다. 해당 기사의 내용들은 정치적 경향과 상관없이 성별화된 성도덕을 공유하는 당대의 분위기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나 이 성차별적 성도덕에 여성들이 동의했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男便 在獄·亡命中妻의守節問題』는 매우 흥미롭게도 남녀필자들이 성별에 따라 남편이 장기간 부재해있는 동안 부인의 수절문제에 관하여 극명하게 상반되는 의견을 보인다. 유일한 남성필자인 송봉우는 남편이 수감되어 있는 동안 부인은 반드시 정조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입옥자, 즉 사회주의자의 아내라면 남편과 정치적 입장을 함께하는 동지여야 하겠고, 이들의 결혼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조건은 사랑과 신의라고 언급한다. 그도 사랑 없는 결혼은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나 신의가 있다면 사랑은 변치 않을 것이므로 입옥자의 아내가 정조를 지키는 것은 그녀가 결혼을 결심한 시점부터 당연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정작 입옥자 남편의 정절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입옥자가 감옥에서 성욕을 못 이겨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할 여지가 더 높고<sup>40)</sup>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바뀔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정절을 어디까지나 여성의 문제로 바라보는 그에게 남성의 정조와 변심 가능성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송봉우는 서로 층위가 다른 연정과 동지로서의 신의를 동일 선상에서 논의하여, 여성이 가지는 연애와 성생활의 자유를 억압한다. 게다가 그는 정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여성과 여성 성노동자를 동시에 비하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그는 정조를 지키지 못하는 여성은 “遊女型的 안해”<sup>41)</sup>라고 명명한다. 정조를 지키지 못하는 여성을 비하하기 위해, 그리고 여성은 정조를 지켜야 한다는 봉건적인 통념 하에서 행해지는 성노

40) 『삼천리』 제3권 제3호(1931년 3월)에 게재된 『在獄中性慾問題』라는 설문기사에서 재옥 중 수감자들이 성욕을 이기지 못하고 매우 괴로워하며, 재옥자들끼리 서로 성관계를 하다가 발각되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다는 언급이 등장한다.

41) 송봉우, 『貞操를 절대嚴守하라!』, 『男便 在獄·亡命中妻의守節問題』, 『삼천리』 제2권 11호, 1930년 11월, 37쪽.

동자에 대한 차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차별적인 시선이 담긴 어휘로 재옥자의 아내를 한 번 더 비난하는 송봉우의 글은 그가 재옥자의 아내도 ‘동지’라는 어휘로 명명하지만, 실상 여성을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만 취급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송봉우를 제외한 다른 여성필자들은 그와 상반되는 입장을 드러낸다. 여성 필자들은 재옥자의 입장이 아닌 재옥자의 아내 입장에서 수절 문제를 생각한다. 그리고 송봉우처럼 사회주의자로서 지켜야할 원칙을 상정하고 그에 합당한 행동을 당위적으로 도출하기보다, 재옥자를 기다려야 하는 아내의 경제적, 본능적인 조건까지 고려하여 수절의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고찰한다. 그 중 경제적 문제만 해결된다면 성욕은 참을 수 있으니 남편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가진 이덕요와 허정숙을 제외하고는, 다른 필자들은 모두 몇 년 동안이나 성욕을 참을 수는 없으니 남편이 출옥할 때까지 하염없이 수절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한다. 송봉우와 같은 남성 사회주의자들과는 달리, 여성 사회주의자들은 여성의 성욕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여성의 성욕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다수였던 것이다.

기사 제목에서 드러나는 의도와는 다르게, 결과적으로 기사에서는 무조건적인 수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두드러졌다. 여성들은 남성 본위인 성 담론에 문제를 제기하며 여성의 성욕을 가시화하고, 이를 존중하라고 주장했다. 남성들이 항상 간과하는 조선 여성들의 구체적인 현실에 근거하여, 가부장적 성적 통제가 여성들의 생활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그녀들의 주장은, 당위에 근거한 송봉우의 주장보다 훨씬 설득력을 가진다. 흥미롭게도, 자기 자신이 삼 년에 걸쳐 수절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도 마땅히 수절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이덕요의 글은 반대로 강요된 수절이 여성에게 안겨주는 고통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엇든새는 やる瀬ない(어쩔 수 없이-번역필자)하게 異性이 그립어지고”, “病이나드러자리에우독허니 누어잇게될새”<sup>42)</sup> 이성이 생각났다는 그녀의 고백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수절의 필요성보다 오히려 수절의 어려움을 상기시킨다. 게다가 이덕

요는 의사이고, 그의 남편은 사실 재옥 중이 아니라 해외에서 사회주의 운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어 만남이 강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다. 결과적은 「男便 在獄·亡命中妻의守節問題」는, 독자들로 하여금 투옥된 남편을 위해 여성이 하염없이 수절하기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다시 한 번 느끼게 만든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사에서 드러나는 여성들의 입장과는 달리, 여성의 성욕을 가시화하거나, 여성에게만 강조되는 수절/정조에 강하게 문제제기하는 글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 배경에는 검열과 성애화된 사회주의 비판이 있을 것이다. 1926년 8월, 당대 최대의 잡지 『개벽』이 사회주의를 선전했다는 이유로 발행 금지를 당한다. 1926년 4월에 조선총독부 도서관과 설치된 이후부터 사회주의적 간행물에 대한 검열이 더욱 강화되면서 한창 유행하던 사회주의 담론 형성에 제동을 걸었고, 그 대신에 일본에서 유행하던 ‘에로, 그로, 년센스’로 대표되는 성애물과 괴기물이 유입되었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인들이 변혁담론의 생산자이기 어려웠던 것처럼, 성애물의 생산자이기도 어려웠다.<sup>43)</sup> 또한 콜론타이의 논의가 여성들에게도 다양한 남성과의 성관계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읽힐 가능성은, 당시 보수적인 성도덕의 추세와 함께 민족주의 진영에서 사회주의자들을 선정적으로 비난하기 좋은 구실이기도 했다. 남성 사회주의자들 역시 가

42) 「男便 在獄·亡命中妻의守節問題」, 『삼천리』, 1930년 11월, 38쪽.

43) 이혜령, 『식민지 섹슈얼리티와 검열-‘도색(桃色)’과 ‘적색’, 두 가지 레드 문화의 식민지적 정체성』, 『동방학지』 164집, 2013, 229-257쪽. 이 논문에서 이혜령이 다루는 대상은 연애담론이 아니라 조선에 유입된 도색물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담론이라는 측면에서 참고할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혜령은 이 논문에서 검열의 강화로 인해 식민지 조선 내에서 사회주의 담론이 생산되지 못하게 되면서 일본으로부터 다량 유입된 성애물과 괴기물이, 이미 강화된 검열로 인해 담론생산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식민지 조선인들은 성애담론의 영역에서도 역시 담론을 생산할 수 없었다고 분석한다. “성적표현은 민족주의적 대의나 식민지적 근대의 규범의 심판이나 징벌을 수반할 때만 실현될 수 있었다”(252쪽)는 이혜령의 주장은 당시 여성의 성을 통제하려는 남성 사회주의자들의 보수적인 흐름 앞에서 이에 동의하지 않는 여성 사회주의자들이 대안적 성담론을 구성하기 어려웠던 이유를 짐작하게 한다.



부장적 성도덕을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 사회주의자들의 성적 자유에 관한 담론을 막고자 했을 것이다.

여성 사회주의자들은 여성과 사회주의라는 두 불온한 항목이 결합된, 1920년대 초반에 등장한 신여성들보다 가부장권에 더 위협적인 존재였다. 특히 사회주의의 이름으로 가부장적 성도덕을 부정하는 콜론타이 이론의 유입은, 여성들에 대한 남성 사회주의자들의 성적 통제를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명분하에 부정할 여지를 제공한다. 사회주의자 진영에서는 그동안 남성의 통제 하에 있던 여성들이 사회주의의 이름으로 해방을 부르짖을 가능성과, 민족주의자들이 가부장적 성도덕의 측면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을 우려했을 것이다. 결국 계급해방을 외치는 남성 사회주의자들 역시 가부장권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뤄지는 그들의 ‘계급해방’을 추구하였으며, 여성들의 해방 가능성을 통제한다는 점에서 민족주의자들과 공모하고 있었다.

여성 사회주의자들은 남성 사회주의자들의 이 같은 속성을 간과하였고, 그녀들에게 주어진 많지 않은 지면을 통해서 가부장적 성도덕을 돌파하는 목소리를 드러낸다. 민족주의자들에게 ‘성적으로 방종한 여성’이라는 낙인을 감수하면서도, 그녀들이 여성들의 목소리로 성애관을 형성해가고자 한 이유는 콜론타이도 언급했듯이, 성해방은 여성들이 혁명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여성들을 사적 영역의 존재로만 취급하는 고정적인 성역할의 타파하기 위한 기획과도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1933년 3월호 『신여성』에 게재된 「階級戰線에서씨러진꽃들-그후의消息-」에서는 한때 활발하게 활동했던 유명한 여성 사회주의자들인 고명자, 허정숙, 황신덕 등이 별다른 사회활동도 하지 않고 동지들과 연락을 끊은 채, 혹은 가정생활에 집중하면서 지낸다는 소식을 전한다. 여성을 사적영역의 존재로 취급하는 관념은 급진적이었던 여성들이 옥고 뒤에, 혹은 활발히 활동한 후에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사회활동에서 은퇴해버리게 만들었다. 혁명 사업과 정치적 입장이 결혼과 정조보다 더 중요하다는 콜론타이의 논의는 꼭 사회주의 이념에 찬동하지 않더라도, 공부나 사회활동에

열의가 있는 여성들이라면 동의할법한 것이었다.

당시 여학생들 사이에서 콜론타이의 저서는 제일 많이 읽는 외국 소설로 보도될 정도로<sup>44)</sup>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이 기사에는 인기 있는 책에 대한 독자들의 독후감도 실렸는데, 이 중 한 여학생은 콜론타이의 『삼대의 사랑』을 읽은 후 “최근에와서 도덕적관념이얼마나 급격하게 변하는것을볼수 있는 동시에 조선여자의도덕에 대한 표준도 이리하여야 할것입니다”<sup>45)</sup>라고 말했다. 이 소설은 한국어로 번역되지 않았고 신문에서도 일본어로 제목을 표기하고 있을 만큼, 독자들은 모두 일본어 독해능력을 갖춘 지식인들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성 지식인들이 이 책에서 주목한 “급격하게 변하는” 도덕적 관념은 게니아의 것으로 보인다. 게니아는 바쁜 당 활동으로 연애관계에 집중할 시간적 여유가 없지만, 성욕도 포기할 수 없다는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애정 없는 성관계를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사회진출에의 욕망이 다른 여성들보다 더 높은 여성 지식인들에게 게니아의 ‘연애’ 방식은, 학업 혹은 사회활동과 성욕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였을 것이다. 특히 결혼을 하면 사회활동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고 가정에 헌신해야만 했던 당대 조선의 상황은, 결혼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게니아의 연애방식을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었을 것이다. 여학생들이 게니아의 연애방식을 두고 “조선여자의 도덕에 대한 표준도 이리하여야 할것”이라고 진술한 배경에는 여성의 사회활동에 호의적이지 않은 당대의 분위기를 반영한다.

여성 사회주의자들이 혁명 사업이라는 활동을 계속해나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남성의 통제로부터 벗어나야했고, 여성들이 남성에게 예측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정조였기 때문에, 이로부터의 탈피는 여성들에게 자유로운 사회활동의 길을 열어주는 첫 번째 관문이기도 하였다. 즉, 여성들이 ‘사회주의자’라는 정체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라는

44) 『讀書傾向- 最高는小說 興味있는讀後의所感 動機最高는친구勸誘: 第一次 女學生界』, 『동아일보』, 1931년 1월 26일.

45) 위의 글.

기표의 면에서나 성도덕의 면에서나, 당대 가장 불온한 두 기표를 꺼안고 시대상황을 돌파해나갈 수밖에 없었다.

## 5. 결론

이 논문은 식민지 조선에서 콜론타이의 연애론이 한국에 소개된 양상을 규명하고자 했다. 조선에서 콜론타이의 이론은 일본을 경유하여 들어왔지만, 사회주의적 연애방식과 여성해방을 위한 길을 둘러싸고 그녀의 이론의 수용에 관한 다종 다기한 의견들이 제출되었던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조선에서는 여성해방과 관련된 논의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가부장적 성적윤리를 여성들에게 강요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그러나 여성들은 남성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한 이 같은 흐름에 저항하였고, 콜론타이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사회생활과 연애생활을 함께해나갈 방도를 고민한다. 본고는 일본과는 다른 조선에서 콜론타이 논의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당시 시대적 맥락을 검토해나가면서 콜론타이에 관한 논의가 전개된 양상을 살펴보았다.

콜론타이의 저작 중 조선에서 그 내용이 상세하게 소개된 작품으로는 『붉은사랑』과 『삼대의 사랑』이 있다. 각각 서광제와 김억에 의해 번역된 두 작품은 전자의 경우 여주인공 왓시릿사가 남성에게 경제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얽매이지 않는 독립적인 태도를 조선 여성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내용으로 긍정하고, 후자는 소설 속 게니아의 연애관을 비판하며 조선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비판적 태도를 표시하지만, 둘 모두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을 가부장적 질서 하에 훈육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1920년대 말, 공황의 여파는 개인보다 사회에 더 집중하는 분위기를 형성하였고, 이제 막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기 시작한 여성에 대해서도 전통적인 역할을 다시 강요하는 등과 같은 보수적인 흐름이 형성되었다. 시

대적인 흐름은 진보적인 이성애관과 여성관을 가진 여성 필자들이 가부장적 분위기에 거스르는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억눌렀다. 조선의 사회주의자들이 콜론타이를 수용하는 방식 역시 이에 영향을 받았다. 콜론타이가 당대의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논의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성공적인 혁명 사업을 위해 연애와 혁명 사업의 적절한 관계를 논한 텍스트로 읽는 경우와, 두 번째는 콜론타이의 논의를 연애론으로 협소하게 축소시키고 사회주의 운동에 전혀 유익한 시사점을 던져주지 못하는 텍스트로 읽는 경우가 있다.

제일 많이 발견되는 첫 번째 입장은 대부분 서광제와 논조가 비슷하지만, 남성 사회주의자들의 논의와 여성 사회주의자들의 논의는 다르게 나타난다. 그 중 여성 사회주의자로서 『붉은사랑』에 관해 논한 많지 않은 여성 사회주의자 중 한 명인 정철성은, 콜론타이의 논의와 관련하여 여성에게만 정조가 강요되는 현실을 비판하고, 여성에게도 성애의 자유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피력한다. 그녀가 보다 직접적으로 주장하지 못한 이유는 여성 사회주의자들을 통제하고 왜곡하려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다. 그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청탁자나 인터뷰어의 시도를 피해가면서 정철성은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에 비판을 가한다. 두 번째 입장을 가진 대표적인 논자로는 민병휘가 있다. 그는 연애가 사회주의 운동에 해를 끼친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단정적인 논조로 사회주의 운동의 해악인 연애에 관심을 가지는 대신 사회주의 운동에 보다 집중할 것을 당부한다. 그의 글 안에서 여성은 연애의 대상에 불과하기에, 사회주의적인 이성애 관계나 여성상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정철성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여성들은 가부장적 분위기의 만연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성을 통제하려는 가부장적 흐름에 비판적이었다. 1930년 11월과 『삼천리』에 게재된 「男便 在獄·亡命中妻의守節問題」라는 기사는 위와 같은 여성들의 분위기를 반영한다. 남녀 사회주의자들에게 남편이 투옥되었을 때 부인의 재혼여부와 수절문제를 논한 이 기사는 제목에서부터 투옥자를 당연히 남성으로 상정하고 수절해야 할 주체를

여성으로만 지목한다는 점에서 명백히 남성 중심적 의도를 드러내지만, 정작 여성 필자들의 답변은 기사의 남성 중심적 기획취지를 비판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있다.

여학생들의 콜론타이 수용 역시 남성 사회주의자들과는 다른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1931년 초, 여학생들의 독서경향을 조사한 자료를 보면, 애독 목록에 콜론타이의 저서가 올라와있었으며, 『삼대의 사랑』에 등장하는 게니아의 연애관을 새로운 시대의 연애관이라며 동조하는 입장이 나타난다. 여성들이 가부장적 성통제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던 이유는 그녀들이 사회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기도 했다. 특히 여성 사회주의자들은 지속적인 혁명 사업 참여를 위해, 여성을 남성에게 예속시키는 정조개념으로부터 탈피하여 아버지와 남편, 혹은 가정 내에서 여성에게 부과된 의무 등 그녀를 구속하는 남성들의 그늘로부터 벗어나야 했다. 이는 여성 사회주의자들이 ‘사회주의자’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사회주의와 가부장제를 위협하는 성도덕이라는, 당대 가장 불온한 두 기표를 껴안고 시대상황을 돌파해 나가야 했던 상황을 반영한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독립신문』, 『동아일보』, 『대중』, 『별건곤』, 『비판』, 『삼천리』, 『신여성』, 『신가정』, 『조선일보』, 『조선지광』

이광수, 『혁명가의 아내』, 『이광수 전집』 2, 삼중당, 1971.

### 2. 단행본

강만길·성대경 엮음,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 창작과비평사, 1996, 442쪽.

권보드래, 『연애의 시대』, 현실문화연구, 2003, 1~288쪽.

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푸른역사, 2004, 1~399쪽.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 독자의 탄생과 한국 근대문학』, 푸른역사, 2003, 1~563쪽.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이현애·정호영 역, 『(콜론타이의) 위대한 사랑』, 노사과연, 2013, 163~226쪽.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김제헌 역, 『붉은사랑』, 공동체, 1988, 1~264쪽.

케릴 페이트만, 이충훈·유영근 역, 『남과 여, 은폐된 성적계약』, 이후, 2001, 169~262쪽.

杉山秀子, 『コロンタイと日本』, 新樹社, 2001, 136~222쪽.

### 3. 논문

이창신, 『경제 대공황기 젠더체계와 미국여성: 여성 고용정책과 정치 네트워크 형성을 중심으로』, 『미국사연구』 17집, 2003, 121-146쪽.

이혜령, 『식민지 섹슈얼리티와 검열- ‘도색(桃色)’과 ‘적색’, 두 가지 레드 문화의 식민지적 정체성』, 『동방학지』 164집, 2013, 229-257쪽.

**Abstract**

## The Accept of Kollontai's Discours and The Meaning in Japanese Colonized Korea

Bae, Sang-Mi

The purpose of this paper presented how the love discourse written by Kollontai was introduced in Korea in Japanese colonial period. Her discourse was accepted as forced patriarchal sexual moral at that time. However, women disagreed with this trend, and they tried to develop a method that combine social and amatory life. This paper studied about how Kollontai's discourse is discussed in colonized Korea concerned periodical context.

Seo Gwang-Je who introduced 『The Red Love』 as socialistic revolution method was favorable. On the other hand, Gim Oek who introduced 『The Love of Three Generations』 as immoral love was very critical. Jung Chil-Sung had a similar attitude of former. She criticized the phenomenon forced fidelity to woman and insisted indirectly that women also have their own sexual decision. It was a strategy that the reason she said 'indirectly' for avoiding trap made by an editor or an interviewee. Min Byoung-Hee had the opposite side. He suggested several bad effect examples to socialist movements and advised socialists should concentrate on the movement instead of love. Women was just sexual objects in his paper.

Like Jung, women resisted the flow of controlling women's sexual right in spite of patriarchal atmosphere. Women need to

escape men's management that arrested their freedom such as socialistic movement. Regarding a sexual issue and patriarchy, women socialists had same interests with New Women who were blamed by them. This phenomenon reflected their situation that overcame harsh era holding on the most rebellious symbol, socialism and sexual moral which threatened patriarchy, for protecting their identity as women socialists at that time.

Key words : Kollontai, Socialism, Women, Patriarchy, Sexual moral, New Women, Red Love, The Love of Three Generations

■ 이 논문은 2014년 11월 13일에 접수되어, 2014년 12월 5일에 심사 완료되고, 2014년 12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